

아버지의 마음

말려주세요



강의 : 박주현 목사

01

저자와 제목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

말라기는 절망과 회의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주전 5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예언자로서 이스라엘의 신앙 쇠신과 윤리적 각성의 급박한 필요성을 선포한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선포하였고, 십일조의 중요성과 제의에 대한 경건, 그리고 이혼 금지와 잡혼 금지를 선포하였다.

히브리어 이름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 말라기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는 표현에서 ‘사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선지자의 이름에 대한 중요한 언어유희다. 이 언어유희는 말라기 자신의 사역이 다가올 사자의 사역의 전조가 되도록 계획된 것임을 암시하며 그 다가올 사자는 신약에서 세례 요한으로 확인된다.

02

저작 연대

주전 5세기 중반의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동시대

말라기서는 그 저작 연대에 대한 어떤 분명한 힌트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자들은 말라기는 아마도 주전 5세기 중반의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동시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암묵적인 성전의 존재를 통해 뒷받침되며(말 1:10, 3:1, 8) 이에 따르면 말라기서의 저작 시기는 주전 516년경에 성전이 재건된 뒤여야 한다. “총독”(1:8)에 대한 언급도 또 다른 근거를 제공한다. 이 말은 바사(페르시아) 시대(주전 539-332년)의 지방 관리에 대해 자주 사용된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라기서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말라기가 책망하는 죄들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책망하는 죄들 사이의 본질적인 유사점이다.

03

주제

냉소주의와 종교적 병폐에 대한 응답

말라기의 동시대인들은 노골적인 우상 숭배에서는 벗어났을 것이고, 그 믿음이 비교적 정통적이었겠지만 결국 그들의 믿음은 죽은 정통이 되어 버렸다. 그들은 너무 쉽게 윤리적으로 타협했고 올바른 예배에 대한 맹렬한 요구를 희석시켰다. 동시대인들의 냉소주의와 종교적 병폐에 대한 응답으로, 말라기의 예언은 언약적 신실함의 회복을 강력히 촉구하는 말씀으로 다가온다.

주전 538년의 고레스 칙령 이후 거의 백 년이 지난 시점

말라기의 사역은 바벨론 포고 생활을 종식시키고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한 주전 538년의 고레스 칙령(대하 36:23) 이후 거의 백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이 시점은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복, 열방의 접붙임, 번영, 확장, 평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귀환 등에 대한 약속들로 성전 재건을 격려한 지 약 80년 뒤였다. 이런 예언들은 환멸에 빠진 말라기의 동시대인들에게 잔인한 조롱처럼 보였을 것이 분명하다. 강렬한 약속들과는 대조적으로 경제적 궁핍, 오래 계속되는 가뭄, 흉작, 전염병 등이 냉혹한 현실이었다.

포로 귀환 이후에도 유다는 약 15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32 x 48킬로미터 정도 크기의 지역으로서 거의 무시할 만한 곳이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 관용과 제한적 자치라는 페르시아의 개화된 정책의 혜택을 누렸지만 외세에 대한 굴종을 뼈저리게 느꼈고, 이웃 나라들의 끊임없는 적대에 시달렸다. 유다는 더 이상 독립 국가가 아니었고 더 이상 다윗 혈통의 왕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영적 궁핍만 경험했다. 이전 시대의 성경들과는 달리 포로기 이후의 책인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는 유대를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기적적인 증거가 없는 곳을 놀랍도록 솔직하게 묘사한다. 솔로몬 성전 및 회복된 성전에 대한 예언적 약속과 대조적으로 실제 포로기 이후의 성전은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열등했다. 말 3:1이 암시하는 대로 이 제2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시적인 현현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은 분명(예를 들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드러내는 것처럼) 엄연히 살아 계셨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했던 시기였다.

언약적 신실성의 회복을 위한 말라기의 여섯 차례 경고성 촉구

논쟁	관련 성구	요약	초점
1	1:2-5	말라기는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 그에 대한 올바른 반응으로서 확고한 순종과 진실한 예배를 요구하는 사랑이 실제로 존재함으로 변호한다. 그러나 백성들은 무가치한 제물과 예배의 위선적인 형식주의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을 기억해야 한다.
2	1:6-2:9	말라기는 이러한 죄악들을 폭로하면서 그런 죄를 용납하여 하나님이 레위 족속과 맺은 언약을 어긴 제사장들을 책망한다.	
3	2:10-16	말라기는 우상 숭배자와의 결혼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배신으로 정죄하며 독단적인 이혼을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는 남편과 아내와의 결혼 언약에 대한 배신으로 정죄한다.	
4	2:17-3:5	말라기는 여호와가 자신의 정당함을 변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고발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 일은 “언약의 사자”가 악인들을 심판하러 오시며 자기 백성의 제물이 마침내 받아들여지도록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러 오실 때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은 엘리야와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대한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
5	3:6-12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제물에 대한 인색한 태도라는 주제로 되돌아간다. 백성들은 물질적 어려움을 경험했고 저주 아래 있었다. 따라서 말라기는 백성들에게 양심적인 십일조를 촉구한다. 그러한 십일조는 하나님의 복으로 보상받게 될 것이다.	
6	3:13-4:3	말라기는 불평하는 동시대인들에게 번영을 누리면서 신적 정의를 피한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언한다.	
요약	4:4-6	말라기는 모세 율법을 기억하고 엘리야와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라는 자신의 예언의 주된 핵심을 요약한다.	

표제(1:1) 뒤에 여섯 개의 단락 내지 논쟁과 결론이 이어진다.

표제(1:1)

- A. 첫째 논쟁 하나님은 선인과 오만한 악인을 구별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입증되는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1:2-5)
- B. 둘째 논쟁 이스라엘의 마지못해 바치는 제물에 대한 정죄(1:6-2:9)
 - C. 셋째 논쟁 결혼 언약의 증인이신 하나님이 우상 숭배자와의 결혼과 혐오감에 근거한 이혼을 정죄하심(2:10-16)
 - C' 넷째 논쟁 하나님은 간음과 그 밖의 도덕적 범죄에 대한 증인이심(2:17-3:5)
 - B' 다섯째 논쟁 이스라엘의 마지못해 바치는 제물에 대한 정죄(3:6-12)
- A' 여섯째 논쟁 하나님은 선인과 오만한 악인을 구별하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입증되는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3:13-4:3)

결론(4:4-6)

말라기 1:1

(말 1:1)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 서두

1:1은 이 책의 서두이며, 이 책의 가장 앞머리에 나오는 “맛사”(경고)는 예언서의 서두에 자주 나오는 특징적 표현이다. 이 서두의 경고가 여호와와 말씀임을 강조한다. 이 표현은, 이 예언 곧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이며 반드시 청종해야 하는 진리의 말씀임을 강조한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언급은 특히 이들 사이의 특별한 언약 관계를 나타낸다. 이 두 고유 명사는 이 책의 결어부(4:4-6)에서 다시 나타나며 문두문미 병행구를 이룬다. 이 언약관계가 이 책과 예언서 전체의 신학적 전제다.

말라기 1:2-5

(말 1: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말 1:3)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말 1:4) 애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말 1:5)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논쟁(1:2-5)

이 단락은 다음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논점의 제기(이스라엘 ~ 2인칭 남성 복수형)(1:2상)
- ② 하나님의 논증(1:2하 ~ 4)
- ③ 결어(이스라엘 ~ 2인칭 남성 복수형)(1:5)

이 단락의 키워드는 사랑이다. 이것을 서두(2상절)에 선포하신다. 이 문장의 순서는 우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가 먼저 나오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표현이 나온다. 화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말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하는 형태다. 이 특별한 사랑은 “에서를 미워하였다”고 하는 말로 대조를 이루며 강조된다. 여기에서 사랑은 언약적 의미를 내포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만을 특별히 아셨다(선택하셨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 사랑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언약적 사랑의 면모는 2절과 5절에서 사용된 “나”와 “너희”의 관계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각별한 사랑을 부정한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곧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반문한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이해다. 이렇게 이 단락의 서두(2상절)에서 단락의 주요 쟁점을 소개한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신다(2상~4절). 2하절은 수사학적 의문문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 의문문은 사자문제를 통해 그 내용을 강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3절에서 하나님은 1인칭 화자로서 과거에 행하신 역사를 언급하신다. 하나님께서(에돔)를 적대시해 그를 황폐케 하셨다는 사실(3절)과 이에 대한(에돔)의 반응도 언급한다(4절). 그리고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유지함으로써 야곱에 대한 특별한 언약적 사랑을 강조한다. 이 내용도 사자문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표현을 통해 강조된다(4상절). 야곱이 에서의 동생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음을 강조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오만을 경계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1:5에서 이스라엘에게 1:2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이스라엘의 잘못된 판단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분으로 고백할 것임을 선언하신다. 이 단락의 서두인 1:2상에서 이스라엘을 2인칭 복수형으로 선포한다. 이 결어 부분(5절)에서 다시 2인칭 복수형으로 돌아와 병행을 이루며, 문두문미 병행구로서 단락의 결론을 맺는다. 이 언약적 콘텍스트에서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는 ‘여호와-이스라엘’의 관계적 표현이 다시 나오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강조한다.

말라기 1:6-2:9

(말 1:6)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 1:7)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말 1:8)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러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말 1:9)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말 1: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 1: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말 1:12)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말 1:13)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 1:14)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 2:1)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말 2:2)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말 2:3)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말 2:4)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 2:5)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말 2:6)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말 2:7)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말 2:8)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말 2:9)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 제사장들의 영적 나태에 관한 논쟁(1:6-2:9)

이 단락은 세 개의 소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질타의 말씀을 담는다.

- ① 운문(1:6 ~ 10)
- ② 산문(1:11 ~ 14)
- ③ 운문(2:1 ~ 9)

1:6-10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제사장들에 대한 질타의 말씀이 선포된다. 1:6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느냐고 반문한다. 1:6은 이 단락의 서두로서 문제의 핵심적 쟁점을 제기한다. 7-8절은 하나님을 멸시한 구체적 사례들을 언급한다. 그들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7절), 눈먼 희생 제물을 바쳤다(8절). 두 가지 대표적 제물인 '곡물과 짐승'이 언급된다. 9-10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도 않을 것이며(9절)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받으시지 않을 것임(10절)을 선포하신다.

1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크게 높임을 받으실 것임을 선포하신다. 이 주제는 1:5에서도 선포된 주제다. 12-13절에서는 하나님의 식탁을 더럽힌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14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임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1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임을 선포한다. 이 경우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경외함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한다. 산문으로 되어 있는 이 소단락도 11절과 14절이 문두문미병행구를 이루며 삼단 양식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1-9에서 다시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질타의 말씀이 나온다. 1-2절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 하였으므로 그들의 삶에 저주가 내릴 것임이 선포된다. 3-6절은 서두에 "보라"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징벌이 확실히 임할 것 임을 선포한다. 절기의 희생의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하신다. 7-9절에서 제사장들은 레위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임이 선포되고, 만군의 여호와와 사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몸소 실천하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를 증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실 것임을 선포하신다.

말라기 2:10-16

(말 2:10)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말 2:11)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말 2:12)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말 2:13)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말 2:14)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말 2:15)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 2:16)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불성실에 대한 논쟁(2:10-16)

이 단락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죄를 다룬다.

- ① 언약 파기에 대한 결론적 선언(논쟁의 핵심적 주제 제기)(10절)
- ② 잡혼에 대한 질타(죄의 종류1)(11 ~ 12절)
- ③ 이혼에 대한 질타(죄의 종류2)(13 ~ 16절)

이 단락은 예언자가 화자로 나오며 이스라엘의 죄를 다룬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끊을 수 없는 언약 관계의 규범을 언급한다. 이스라엘은 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아버지이다. 이 사실이 병행구를 통해 강조된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고유한 믿음이다. 그리고 그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다. 이 단락에서 '에하드'(하나)는 4회에 걸쳐 반복된다. 특히 서두 10절에 언급된 이 내용은 결어부인 15절에서 다시 반복되면서 그 의미를 강조한다. 11절에 나오는 '이방 신의 딸'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와의 아들'이라는 개념과 대조를 이루며 이방인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문제가 단순히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신앙적 문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개역한글에서 '궤사'로, 개역개정에서 '거짓'으로 번역된 '바가드'는 다른 사람을 배신이나 거짓으로 불성실하게 대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스라엘은 서로 배신하여 언약 공동체로서의 의무를 망각하며, 11절에서는 하나님도 배신하고 있음이 질타된다.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한 형제임을 망각하고 서로를 배신하며, 이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배신이란 말은 이 단락에서 다섯 번에 걸쳐 나오는 것이며, 단락 전체의 중심어휘 중의 하나로서 전 구조체를 연결하고 있다. 이 단락의 말미에서 '이 명령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배신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말라기 2:17-3:6

(말 2:17)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데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말 3: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 3:2)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쯧물과 같을 것이라

(말 3:3)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말 3:4) 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말 3:5)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삯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 3:6) 나 여호와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에 대한 논쟁(2:17-3:6)

이 단락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논쟁을 다룬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을 비난한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러 가실 것이며, 이 심판이 결국 하나님 자신의 공의로움을 증거할 것임을 선포하신다. 그 내용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 ① 논쟁의 서두(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2:17)
- ② 하나님의 특사를 통한 심판의 예비(정결케 하는 역사)(3:1 ~ 4)
- ③ 하나님의 직접적 강림과 심판(3:5 ~6)

서두(2:17)에서 이 단락의 쟁점이 언급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다고 말씀하신다. 이들의 말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부정한다. 그들은 악인이 복을 받고 의인이 벌을 받는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정의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 아니며, 따라서 신뢰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절대주이시며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의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3:1-4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임을 선언하신다. 그가 하나님의 현현을 예비할 것임을 선포하신다. 3:5-6에서는 초점이 하나님의 직접적 강림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 맞추어진다.

말라기 3:7-12

(말 3: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말 3: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말 3:9)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 3: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 3: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말 3:12)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 십일조에 관한 논쟁(3:7-12)

이 단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 특히 십일조와 헌물을 제대로 바치지 않은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관해 묻는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십일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그들의 축복의 길임을 가르치신다. 여기에서 십일조를 통해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시며 축복의 확실성을 선포하신다. 이 단락의 내용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 ① 십일조와 관련된 문제 제기(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3:7 ~ 9)
- ② 십일조를 통한 축복의 확실성(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3:10)
- ③ 땅에서의 풍성한 소산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 이스라엘의 축복을 다시 강조함(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3:11 ~ 12)

이 단락은 세 개의 소단락으로 구성되었다. 7-9절은 이 단락의 쟁점을 제시한다. 위의 다른 논쟁들과 같다. 10절은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확실성을 선포한다. 11-12절은 축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선포한다. 이 단락의 특징은 각각의 소단락의 한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를 통하여 각각의 소단락의 내용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임으로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말라기 3:13-4:3

(말 3:13)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 3:14)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 3:15)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말 3:16)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 3:1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말 3:18)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말 4: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 4: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 4:3)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논쟁(3:13-4:3)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말로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질타하신다. 이 단락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을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상세히 선포하신다. 이 논쟁이 반복되는 것은 이것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 1 논쟁의 서두(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스라엘의 의심)(3:13 ~ 15)
- 2 하나님의 기념책에 의인의 이름을 기록(3:16)
- 3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3:17 ~ 4:4)

13-15절의 내용적 구조는 2:17과 유사하다. 우선 이스라엘이 그들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괴롭힌 사실에 대하여 언급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을 부인한다. 그 다음 그들의 말이 구체적으로 인용된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완악한 말을 하였다고 하시자 그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느냐고 반문한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의 말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신다. 그 내용은 ‘하나님은 원칙 없이 행하시는 분’ 같다는 것이다. 악하고 교만한 사람이 복을 받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순종하는 사람이 오히려 징벌을 받는 것 같다고 하는 불평인 것이다. 하나님께 이처럼 충성하여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3:16-18).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사실을 언급하신다. 이 기념책은 여호와께서 인간을 심판하실 때 각 사람의 행위를 분명히 기억할수 있

도록 인간의 행적을 모두 기록한 책이다. 그들의 충성과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선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들을 아끼는 자식들처럼 축복하리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은 그들이 그들의 시간에 맞추어 축복이 오지 않는다고 조급해 한 결과일 뿐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모든 역사와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 자신이다.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 뿐이다(전 3:1-14).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도 그의 정한 때에 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고 인내해야 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4:1-3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의로운 해'로 오셔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들이 힘을 얻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고 말씀하시며 악인들에 대한 그들의 승리를 약속하신다.

말라기 4:4-6

(말 4:4)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 4:5) 보라 여호와와 그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 4:6)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 **결어(4:4-6)**

이 단락은 소예언서 전체의 결어 역할을 하며 동시에 예언서 전체의 결어 역할을 한다. 예언서는 모세오경의 언약법과 맥을 같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언서는 언약을 전제로 한다. 이스라엘의 언약 파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다. 따라서 예언서의 결어부분에서 호렙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 곧 율법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매우 적절한 귀결이다(4:4).

그리고 심판이 이르기 전에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다. 엘리야는 세상 사람들이 정벌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신약에서는 세례자 요한과 이 엘리야를 동일시한다. 기능과 역할 면에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모든 사람이 이 엘리야일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예언자들의 역할이었고 사명이었다.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이기도 하다.

